

## 일본중학교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285
----------	-----

발의년월일 : 2001. 7. 25.

발 의 자 : 총무사회위원회

### 1. 주 문

- 일본정부가 식민지 침략 및 범죄 사실을 은폐,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일본의 자라나는 새 세대를 병들게 하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범죄임.
- 일본의 역사왜곡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조소거리가 될 것이며, 고립을 초래할 것임.
-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목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뱃부시를 비롯한 각급 중학교에서 왜곡역사교과서가 교재로 채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

### 2. 제안이유

- 역사교과서의 검정, 승인권을 가진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왜곡교과서 재수정을 촉구하는 목포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코자 함.
- 일본내 중학교의 역사교과서 채택권한이 각 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있는 만큼 목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뱃부시 교육위원회, 뱃부시의회, 뱃부시에 목포시의회의 결의를 전달함으로써 일본내에서 왜곡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기여코자 함.
- 일본내 왜곡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을 격려,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일본왜곡역사교과서 바로잡기를 통해 굴절된 한·일간의 과거사를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하며, 자매도시간 우호증진을 공고히 하고자 함.

### 일본중학교 왜곡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결의

최근 일본정부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쇼샤(扶桑社)출판사등이 태평양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식민지 근대화·시혜론의 관점에서 조선민족을 위한 것처럼 왜곡하고, 수탈과 지배를 은폐한 철저히 개악된 교과서를 검정·통과시켰다. 뿐만아니라 이에 항의하며 왜곡역사

교과서의 수정, 재수정을 요구하는 우리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면전에서 거절하였다.

특히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아예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범죄와 ‘징용·징병’ 문제를 삭제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왜곡교과서를 일본내 중학교의 12% 보급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일본의 자라나는 새세대를 병들게 하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범죄이다. 그러나 결국 일본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조소거리가 되고, 고립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이 가져온 참담하고도 불행한 과거사를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에 묻혀 일본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존중과 평화로운 한·일협력질서의 구축을 소망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는 과거 침략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된 반성과 후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에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의회는 일본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대한민국 목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벳부시를 비롯한 각급 중학교에서 왜곡역사교과서가 교재로 채택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 리 의 決 意

1. 일본정부는 검정승인 된 교과서를 철회·재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침략사실을 겸허히 반성하고 사실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1. 목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벳부시(別府市)와 벳부시의회, 벳부시교육위원회에서는 관내 중학교에서 결코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 7. 25.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